

‘-었-’과 결합하는 보조용언의 문법화와 의미적 특성

‘-고 앓다’, ‘-고 자빠지다’, ‘-어 빠지다’, ‘-어 터지다’를 중심으로

이금희(성균관대)

1. 서론

한국어의 보조용언은 일반적으로 본동사에 후행하면서 선행 명제에 화자의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느낌이나 태도를 표시하는 양태적 기능을 나타내기도 하고 진행, 지속, 완료 등의 상적 기능을 나타내기도 한다. 보조용언 ‘-고 있다, -어 있다, -어 오다, -어 가다, -어 대다’ 등의 경우는 ‘진행’이나 ‘지속’, ‘반복’ 등의 상적 의미를 나타내고, ‘-어 버리다, -어 내다, -어 치우다’ 등의 경우는 ‘완료상’과 함께 명제 내용에 대한 화자의 ‘속 시원함’이나 ‘아쉬움’, ‘걱정스러움’ 등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러한 대부분의 보조용언들은 시제적인 면에서 특별한 제약이 없이 사용되는데 몇몇 보조용언은 항상 ‘-었-’이 결합되어 나타난다.

- (1) 가. 빨리 숙제를 해 {버려요/버렸어요/버릴 거예요}.
- 나. 개똥 같은 소리만 하고 {*자빠지네/자빠졌네/*자빠질 거예요}.
- 다. 그렇게 맨날 놀고 {*앓으면/앓았으면/*앓을 거면} 어떡해?
- 라. 은주는 정말 게을러 {?*빠져요/빠졌어요/*빠질 거예요}?
- 마. 그런 사람은 주변에 흔해 {?*터져요/터졌어요/*터질 거예요}.

(1가)의 ‘-어 버리다’ 보조용언의 경우는 현재, 과거, 미래의 활용형이 모두 가능하다. 그러나 (1나~마)의 ‘-고 자빠지다’, ‘-고 앓다’, ‘-어 빠지다’, ‘-어 터지다’의 경우는 현재나 미래의 종결 표현과 결합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고 ‘-었-’이 결합된 형태로 나타나야 자연스럽다.

- (1') 가. 빨리 숙제를 {해요/했어요/할 거예요}.
- 나. 개똥 같은 소리만 하고 {있어요/있었어요/있을 거예요}.
- 다. 그렇게 맨날 놀고 {있다/있었다/있을 것이다}.
- 라. 은주는 정말 {게을러요/게을렀어요/게을를 거예요}.
- 마. 그런 사람은 주변에 {흔해요/흔했어요/흔할 거예요}.

(1가)의 ‘-어 버리다’가 제거된 (1')가)에서도 활용형에 제약이 없이 나타난다. 그런데 (1나~마)의 ‘자빠지다’, ‘앓다’, ‘빠지다’ 그리고 ‘터지다’가 제거된 (1' 나~마)에서는 여러 종결 활용형이 자연스럽다. 이는 보조용언 ‘자빠지다’, ‘앓다’, ‘빠지다’, ‘터지다’는 선어말어미 ‘-었-’이 결합된 형태로만 활용이 제약되는 고정 표현으로 쓰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1나)의 ‘개똥 같은 소리만 하고 자빠졌네’나 (1' 나)의 ‘개똥 같은 소리만 하고 있네.’ 모두 발화시에 일어나는 현재 사태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다.

본고는 보조용언 중 ‘-었-’이 결합된 ‘-고 자빠지다’, ‘-고 앓다’, ‘-어 빠지다’, ‘-어 터지다’에 관심을 두고 이들이 어떠한 구성에서 하나의 보조용언으로 문법화되었는지, 그리고 왜 ‘-었-’이 결합되었는데 현재 사

태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이때 결합된 ‘-었-’과 그에 선행하는 ‘자빠지-’, ‘앉-’, ‘빠지-’, ‘터지-’는 어떤 의미 기능의 차이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

2. ‘-고 자빠지다’, ‘-고 앉다’와 ‘-어 빠지다’, ‘-어 터지다’의 문법화와 의미 특성

그간의 많은 보조용언 연구들에서 ‘-어 빠지다’를 제외하고 ‘-고 자빠지다’, ‘-고 앉다’, 그리고 ‘-어 터지다’를 보조용언 구성으로 보는 논의는 많지 않았다. ‘-어 빠지다’가 여러 논의에서 보조용언으로 처리하고 있는 데 반해 ‘-어 터지다’는 류시중(1995)에서 보조용언으로 처음으로 제기되고 김영신(1998), 구종남(2013), 박기표(2014), 진가리(2018)와 같은 몇 논의에서만 보조용언에 포함되었다. ‘-어 빠지다’에 비해 ‘-어 터지다’는 본동사와의 결합에서 생산성이 낮아 보조용언 범주에 포함되지 못하다가 최근 논의들에서 보조용언 구성으로 포함되고 있는 것이다. ‘-고 자빠지다’와 ‘-고 앉다’는 ‘-고 앉았다’와 ‘-고 자빠졌다’의 고정된 형태로 방언에서만 쓰인다는 이유로 일반적인 보조용언과 이질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진가리, 2018:51) 그러나 다른 보조용언과 마찬가지로 ‘내적 비분리성’과 ‘의존성’을 갖고 있고 ‘앉다’와 ‘자빠지다’가 더 이상 본동사로서의 의미를 갖지 않는 특성을 들어 김기혁(1987)에서 보조용언으로 다루기 시작하면서 그 이후의 논의인 이선웅(1995), 강흥구(1999), 구종남(2013), 진가리(2018) 등에서도 보조용언으로 다루지게 되었다. 구종남(2013)에서는 이 형태들을 ‘-고 자빠져 있다’와 ‘-고 앉아 있다’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아 ‘합성형 보조용언’으로 명명하고 있다.

그러나 ‘-었-’이 결합된 보조용언은 ‘-고 자빠지다’나 ‘-고 앉다’ 외에도 ‘-고 말다’, ‘-어 빠지다’와 ‘-어 터지다’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므로 ‘-었-’이 결합되어 고정된 형태로 쓰인다고 하여 보조용언 범주에서 제외할 필요는 없다. ‘말다’에 ‘-었-’이 결합된 ‘-고 말았다’나 ‘-겠-’이 결합된 ‘-고 말겠다’도 보조용언으로 일찍이 포함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들 보조용언의 ‘-었-’은 어떤 기능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나의 형태로 굳어지게 된 것일까. ‘-고 자빠졌다’, ‘-고 앉았다’나 ‘-어 빠졌다’, ‘-어 터졌다’의 경우 ‘-고 자빠지-’, ‘-고 앉-’, 그리고 ‘-어 빠지-’, ‘-어 터지-’에 과거시제 선어말어미 ‘-었-’이 결합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고 자빠져 있다’나 ‘-고 앉아 있다’ 그리고 ‘-어 빠져 있다, -어 터져 있다’에서 두 용언이 융합되고 문법화되어 보조용언이 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보조용언 ‘-고 자빠졌다’와 ‘-고 앉았다’나 ‘-어 빠졌다’와 ‘-어 터졌다’ 구성에 결합된 ‘-었-’은 (1나~마)의 예를 통해 화자가 현재 상태를 기술하는 것으로 사건의 내적 상태를 나타내는 상적 의미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어떤 행위나 상태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발화시까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나타내는 ‘상태 지속상2’)을 드러낸다.

‘자빠지다’나 ‘터지다’는 순간동사로 발화 시점에 일어난 일에도 ‘-었-’이 결합된 형태가 나타나야 하나

1) 강흥구(1999)에서는 ‘-어 자빠지다’도 보조용언에 포함하고 있는데 말뭉치 자료를 검색한 결과 ‘-어 자빠지다’는 ‘-어 있다’를 속되게 이르는 표현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 자빠졌다’와 달리 ‘-어 자빠지다’는 다음 예에서 보듯이 ‘-었-’이 결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가. 안 사가면 목어 자빠질 것 아니어?

나. 별건 황토가 부드러운 속살을 드러내면서 벌렁 누워 자빠졌다. <그곳에 이르는 먼길, 김원일>

다. 글썩, 나라가 망해 자빠질 때 당나라 병졸놈들한테 중국 땅까지 끌려가 죽어 묻혔다는 의자왕이 ~

2) 이지양(1982)에서는 ‘지속상’을 ‘완료지속상’과 ‘미완료지속상’으로 구분하였고 이선웅(2007)에서는 ‘완료지속상’ 대신 ‘결과상태상’을, ‘미완료지속상’을 ‘진행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결국 ‘완료지속상’과 ‘결과상태상’, ‘미완료지속상’과 ‘완료상’은 같은 개념을 나타내는 용어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어떤 상태가 완료되고 그 상태가 지속되는 상을 ‘상태지속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상태성을 갖는 형용사나 상태 동사의 경우 어떤 결과가 남는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과지속상’이 아닌 ‘상태지속상’이라는 용어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개념상 ‘완료지속상’이나 ‘결과상태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

‘앉다’나 ‘빠지다’는 그렇지 않다. 발화시점에 일어난 일에는 현재형이 가능하다. 그런데 ‘-었-’이 결합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이 시제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과거시제 ‘-었-’이 ‘자빠지다, 앉다’나 ‘빠지다’, ‘터지다’에 결합했다기보다는 상태지속상을 나타내는 ‘-어 있-’이 결합된 후에 축약 과정을 거쳐 ‘-고 자빠졌다’, ‘-고 앉았다’, ‘-어 빠졌다’, ‘-어 터졌다’가 되고 이들이 보조용언으로 문법화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³⁾

이는 여러 개의 용언이 연속되어 나타날 수 있는 한국어의 특성과 관련되는 것으로, 연속되던 용언 중 선행 용언과 후행 용언이 결합하여 하나의 문법적 요소로 문법화되는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2) 가. 10년 전부터 캠핑을 해 오고 있다.

나. 나도 모르게 버럭 화를 내고 말아 버렸다.

다. 할아버지의 건강 상태는 아주 나빠져 있다.

라. 그는 지금 합격 소식을 듣고 행복해하고 있다.

마. 공부를 미리 미리 해 놔 가지고 걱정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보조용언들은 (2가~마)처럼 두 개 이상이 연속되어 ‘해 오고 있다’, ‘내고 말아 버렸다’, ‘나빠져 있다’, ‘행복해하고 있다’, ‘해 놔 가지고’와 같이 쓰일 수 있다. 그런데 (2다)의 ‘나빠져 있다’나 ‘행복해하고 있다’는 보조동사 ‘-어 지다’와 ‘-어 하다’가 본용언에 밀접하게 결합되어 파생접미사적인 성격을 띠어 가기도 하고 (2마)의 ‘해 놔 가지고’의 ‘-어 가지고’는 이유의 ‘-어서’의 의미를 띠는 하나의 연결어미적 성격을 갖게 되는 것으로 보조용언에서 접미사와 어미로 더 문법화되는 단계에 있는 것들이다.

그러면 ‘-고 자빠졌다’와 ‘-고 앉았다’, ‘-어 빠졌다’와 ‘-어 터졌다’는 같은 단계의 문법화를 겪는 보조용언인가. 본고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유형들은 선행 용언은 본동사적 의미를 갖고 후행 용언은 지속상의 보조용언이었던 구성인데 이들이 축약, 융합 과정을 거쳐 또 다른 하나의 보조용언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본용언+보조용언’ 구성이 결합되어 하나의 보조용언이 된다는 점은 (2다, 마)와는 다른 성격을 갖는다. 또한 이들은 ‘본용언+보조용언’ 구성에서 ‘본용언’이었던 용언이 양태적 의미를 담당하고 ‘보조용언’은 상적 의미를 담당하며 하나의 단위로 굳어지는 양상을 띤다는 점에서 이전 보조용언 구성들과는 차이를 보인다.

2.1. ‘-고 자빠지다’와 ‘-고 앉다’의 문법화 현상과 의미 특성

많은 언어에서 보조용언은 본용언으로 쓰일 때의 원래 개념에서 문법화 경로를 통해 문법화 되기 때문에 근원 개념과 긴밀한 관계가 있음이 논의되어 왔다.(임동훈, 2021:62) Heine(1993:28)에서 보조용언으로 문법화되는 개념들은 위치(Location), 이동(Motion), 활동(Activity)를, 자세(Position), 관계(Relation), 소유(Possession) 등을 나타내는 것들이라고 설명하였다.

(3) 가. 위치: ‘be at’, ‘stay at’, ‘live at’, ‘remain (at)’

나. 이동: ‘go’, ‘come’, ‘move’, ‘pass’

다. 활동: ‘do’, ‘take’, ‘continue’, ‘begin’, ‘seize’, ‘put’, ‘keep’

라. 소망: ‘want’, ‘wish’

3) ‘-었-’이 결합되는 또다른 보조용언 ‘-고 말다’의 경우에는 ‘-었-’이 완료상의 의미 기능으로 해석된다.

마. 자세: ‘sit’, ‘stand’, ‘lie’

바. 관계: ‘be (like)’, ‘be (part of)’, ‘be accompanied by’, ‘be with’

사. 소유: ‘get’, ‘own’, ‘have’ (임동훈, 2003:63 재인용)

(3마)에서 보듯이 자세를 나타내는 ‘앉다, 서다, 눕다’의 개념을 나타내는 동사들은 다른 언어에서도 보조용언으로 문법화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한국어에서는 ‘앉다’와 함께 ‘눕다’가 아닌 ‘자빠지다’가 문법화되었다는 점이다. ‘자빠지다’는 ‘눈길에 미끄러져 자빠졌다.’처럼 ‘뒤로 또는 옆으로 넘어지다’는 뜻을 나타내거나 ‘남의 일에 간섭 말고 그냥 자빠져 자라’와 같이 ‘눕다’를 속되게 이르는 말로 쓰이는 표현이다. 한국어에서는 자세를 나타내는 동작 중 ‘앉다’와 ‘눕다’를 속되게 이르는 ‘자빠지다’가 보조용언으로 사용된다.

‘앉다’와 ‘자빠지다’는 선행 명제 내용에 대해 화자의 못마땅함을 나타내는 보조용언으로 문법화되었는데 일반적인 보조용언들과 달리 선어말어미 ‘-었-’과 결합되어 나타난다. 그리고 이때의 ‘-었-’는 과거시제를 나타내기보다는 상태 지속을 나타내는 ‘-어 있-’의 축약형일 가능성이 높다.

(4) 가. 엄마는 멍하니 물고기를 들여다보고 {앉아 있다/?앉았다}.

가’. 엄마는 멍하니 물고기를 들여다보고 {서 있다/?섰다}

나. 밥 먹고 (매일) {자빠져 있으니/?자빠졌으니} 소화가 되겠니?

나’. 밥 먹고 (매일) {서 있으니/?섰으니} 소화가 되겠니?

다. 자식 놈이 맨날 게임만 하고 {앉아 있으니/앉았으니} 속이 안 터져?

다’. 자식 놈이 맨날 게임만 하고 {?*서 있으니/*섰으니} 속이 안 터져?

라. 지금이 몇 신데 아직도 휴대폰만 보고 {자빠져 있어/자빠졌어}?

라’. 지금이 몇 신데 아직도 휴대폰만 보고 {서 있어/??섰어}?

마. 뭐, 손해 배상? 손해 배상 같은 소리 하고 {?앉아 있네/앉았네}.

마’. 뭐, 손해 배상? 손해 배상 같은 소리 하고 {*서 있네/*섰네}.

바. 저거 또 공부는 안 하고 연애질하고 {??자빠져 있어/자빠졌어}.

바’. 저거 또 공부는 안 하고 연애질하고 {*서 있어/*섰어}

(4가, 나)에서 ‘앉다’와 ‘자빠지다’는 본동사의 의미로 해석되는데 이때의 ‘앉아 있다’나 ‘자빠져 있다’는 (4가’, 나’)처럼 ‘서 있다’나 ‘누워 있다’ 등의 다른 자세를 나타내는 동사로 교체될 수 있다. 이에 반해 (4다, 라)의 ‘앉다’와 ‘자빠지다’는 본동사의 의미로도 해석될 수도 있고 선행 명제 내용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화자의 심리적 태도를 나타내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로 해석되는 경우는 다른 ‘서 있다, 누워 있다’ 등으로 교체될 수 있으나 후자의 화자의 불만족스러운 심리적 태도를 드러내는 경우는 다른 자세를 나타내는 동사로 교체될 수 없다. (4마, 바)에서는 ‘앉다’와 ‘자빠지다’가 자세를 나타내는 본동사의 의미로는 해석되지 않고 화자의 심리적 태도만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경우에는 (4마’, 바’)처럼 다른 자세를 나타내는 동사로 교체되는 것이 부자연스럽다.

이처럼 보조동사 ‘-고 앉았다’와 ‘-고 자빠졌다’는 행위 자세를 나타내는 ‘앉다’와 ‘자빠지다’에 ‘-어 있다’가 결합되어 어떤 행위가 지속된다는 의미로 사용되다가 상태 지속의 ‘-어 있-’이 축약되면서 ‘앉았다’와 ‘자빠졌다’ 형태가 되고 이 표현이 (4다, 라)의 예처럼 주어와 다른 행위를 하지 않고 단순히 ‘앉아 있-’거나 ‘자빠져 있-’는 행위를 하여 화자가 못마땅하다는 화자의 심리적 태도가 문맥에 함축되면서 보조용언으로 문법화된 것으로 보인다. 흥미로운 것은 ‘-고 앉았다’나 ‘-고 자빠졌다’는 명제 내용에 상적으로는 ‘진행상’의 의미를 부여하고 양태적으로는 ‘화자의 불만족스러움’을 나타낸다는 점이다.

‘-고 앉았다’와 ‘-고 자빠졌다’의 상적 의미에 대해서는 김기혁(1987), 이선웅(1995)와 구종남(2013), 진가리(2018) 등에서 논의되었는데 이선웅(1995)에서는 ‘앉아 있다, 자빠져 있다’에서 비롯된 형태이므로 ‘완료지속상’을 나타낸다고 본 반면 김기혁(1987), 구종남(2013)과 진가리(2018)은 ‘진행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았다.

김기혁(1987:42)에서 ‘앉았다, 자빠졌다’는 ‘있다’와 같은 뜻으로 ‘-는 중이다’의 의미를 나타내는데 ‘있다’에 비해 ‘불만스러움’, ‘마땅치 않음’의 심리적인 의미가 나타난다고 보았다. 구종남(2013:25)에서도 ‘앉아 있다’와 ‘자빠져 있다’는 ‘있는(존재하는)’ 방식으로 ‘앉아’와 ‘자빠져’가 쓰인 것으로 ‘[V₁+고+있-]’ 형식을 띤 ‘[V₁+고+{앉아 있다}]’라고 보고 같은 진행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진가리(2018:87)에서도 ‘-고 앉았다’와 ‘-고 자빠졌다’가 ‘-고 있다’와 같은 진행상을 나타내는 계열이라고 보았는데 다만 이런 ‘진행상’은 이 보조용언의 주된 역할은 아니고 화자의 부정적인 태도인 ‘불만스러움, 멸시, 비하’ 등의 양태적 의미가 주된 의미라고 기술하였다.

일반적으로 완료상을 나타내는 보조용언 ‘-어 버리다, -어 내다, -어 치우다’ 등을 살펴보면 상적으로는 완료상을 나타내면서 동시에 양태적으로 화자의 ‘만족스러움’이나 ‘속 시원함’, ‘아쉬움’을 나타내는 것으로 다루어져 왔다.

(5) 가. 귀찮은 일은 빨리 해 버려요.

나. 내가 먹으려고 했는데 혼자 다 먹어 버렸군요.

다. 월드컵에서 많은 선수들이 좋은 성과를 이루어 낼 것이다.

라. 이번 일만 해 치우고 나면 인생에 별다른 장애물은 없을 것이다.

(5가~라)의 보조용언들의 경우 ‘-어 버리다, -어 내다, -어 치우다’가 상적으로 완료상을 나타내면서 양태적으로 ‘속 시원함’이나 ‘아쉬움’, ‘만족스러움’의 화자의 심리적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보조용언의 이런 특성을 감안해 보았을 때 ‘-고 앉았다, -고 자빠졌다’에도 상적 의미와 양태적 의미가 동시에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다. 다만, 문법화되기 전 구성에서 ‘지속상’을 나타내는 ‘-어 있-’이 결합된 ‘-고 앉았다’와 ‘-고 자빠졌다’에 지속상이 아닌 진행상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이다.⁴⁾

(6) 가. 뭐, 손해 배상? 손해 배상 같은 소리 하고 {앉았네/자빠졌네/있네}.

나. 저거 또 공부는 안 하고 연애질하고 {자빠졌어/앉았어/있어}.

다. 머? 유럽식 훈련 시스템? 웃기고 {자빠졌네/앉았어/있어}. <우리생애최고의 순간>

라. “난초나 치고 {자빠졌는/앉았는/있는} 반동새끼!” <유기성(1994), 아름다운 시작, 삼신각>

마. 아빠는 맨날 골프 프로그램만 보고 {*자빠졌으면서/앉았으면서/있으면서} 왜 난 웹툰 못 보게 해?

(6가~라)의 예를 보면 자세를 나타내는 동사 ‘앉다’, ‘자빠지다’와 상태지속을 나타내는 ‘-었-’이 결합된 보조용언 ‘앉았다, 자빠졌다’가 지속상이 아닌 진행상을 나타내고 보조용언 ‘-고 있다’와 같이 ‘현재 진행상’을 나타내는 계열의 보조용언으로 문법화된 것으로 보는 것에는 무리가 없어 보인다. 이는 보조용언

4) 문맥에 따라 ‘-고 앉았다’나 ‘-고 자빠졌다’를 ‘-고 앉아 있다’와 ‘-고 자빠져 있다’가 교체될 수도 있는 (4다, 라)와 같은 예문에서는 이들 표현이 지속상인지, 진행상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이선웅(1995)에서 제시된 ‘너는 왜 맨날 일을 안 하고 즐기고 자빠져 있냐(앉아 있냐)’를 완전히 문법화 단계가 아닌 중간적인 단계의 표현이라고 가정하면 ‘헛소리 하고 {앉았다/자빠졌다}’, ‘웃기고 {앉았네/자빠졌네}’와 같이 완전히 문법화된 예에서는 ‘진행상’으로 보는 것에 문제가 없을 듯하다.

‘앉았다’와 ‘자빠졌다’에 가시적인 형태로는 ‘있-’이 존재하지 않으나 ‘있다’의 문법적인 자질이 남아 ‘-고’와의 관련성을 맺으면서 ‘진행상’을 나타내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 ‘-고 앉았다’나 ‘-고 자빠졌다’는 ‘-고 앉아 있다’와 ‘-고 자빠져 있다’의 축약형인데 연결어미 ‘-고’는 실제 ‘앉아 있다’와 ‘자빠져 있다’ 동사구와 연결된 것으로 이때 ‘앉아’와 ‘자빠져’는 존재 동사 ‘있다’의 자세를 의미하는 부사어로 ‘-고’와 문법적으로 관련성을 맺는 서술어는 ‘있다’라고 할 수 있다. 연결어미 ‘-고’와 서술어 ‘있다’가 문법적으로 관련성을 맺으면서 ‘진행상’의 의미를 나타내게 된 것이다.

또한 (6가~라)의 예에서 보듯이 ‘-고 있다’가 단순히 현재 진행을 나타내는 데 반해 ‘-고 앉았다’, ‘-고 자빠졌다’는 [+못마땅함]이라는 화자의 태도가 들어있다. 그리고 (6마)의 예를 통해 ‘앉았다’에 비해 ‘자빠졌다’는 [+비속성]이 더 느껴지는 것으로 보인다. 아빠의 행동에 대해 ‘불만족스러움’이나 ‘못마땅함’을 드러낼 수는 있지만 비속하게 표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자빠졌다’를 쓰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이러한 양태적 의미는 (4다, 라)와 같이 화자는 주어와 다른 행동을 하기를 원하는데 주어는 화자가 원하는 행동이 아닌 다른 행동을 하면서 앉거나 자빠져 있다는 맥락으로 자주 쓰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쓰이는 ‘자빠지-’와 ‘앉-’은 자세를 나타내는 의미에서 화자가 ‘원하지 않는 행동’이라는 문맥적 의미가 관습화되어 ‘불만족스러움’이나 ‘못마땅함’이라는 양태적 의미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고 있다’가 ‘현재 진행상’을 나타내면서 양태적으로는 무표적인 표현이라고 하면 ‘-고 앉았다’와 ‘-고 자빠졌다’는 상적으로는 ‘현재 진행상’을 나타내면서 양태적으로 화자의 ‘불만족스러움’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고 자빠졌다’는 ‘-고 앉았다’와 같이 [+불만족스러움]이라는 양태적 의미에 [+비속성]까지 드러내어 화자의 명제 내용에 대한 불만스러움넘어 비하하는 의미가 덧붙게 되는데 이는 ‘자빠지다’ 어휘가 본래 갖는 ‘비속성’의 의미자질이 전이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2.2. ‘-어 빠졌다’와 ‘-어 터졌다’의 문법화 현상과 의미 특성

‘-어 빠지다’와 ‘-어 터지다’를 보조용언으로 다루는 논의들에서 이들은 주로 형용사가 본동사로 오는 경우에 결합되는 것으로 논의되었으나⁵⁾ 선어말어미 ‘-었-’이 결합되고 다른 활용형이 제약되는 현상에 대해서는 자주 언급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실제로 이 두 보조용언은 주로 ‘약하다, 혼하다, 좁다, 낡다, 약다, 게으르다, 느리다’ 등의 형용사와 결합되기도 하지만 ‘늡다, 낡다, 닳다, 마르다, 썩다, 붓다, 분다, 무르다’ 등의 상태성 동사와도 자주 결합된다.

- (7) 가. 그는 마음이 약해 {*빠져요/빠졌어요}.
 가’. 그는 마음이 약해요.
 나. 그런 종류는 주변에 혼해 {??터져요/터졌어요}.
 나’. 그런 종류는 주변에 혼해요.
 다. 지금 살고 있는 고시원은 너무 좁아 {*터져요/터졌어요}.

5) 이선웅(1995:85), 구중남(2013:34) 등의 많은 논의에서 이들 보조용언은 형용사와만 결합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구중남(2013: 36)에서는 ‘-어 빠지다’와 ‘-어 터지다’가 현재시제 문말어미 ‘-니다’와 통합될 수 없고 현재시제 관형사형어미 ‘-는’과 통합될 수 없는 이유를 형용사에만 통합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가. *진호가 게을러 빠진다.
 나. *게을러 빠지는 민수

그러나 ‘물러 빠진/*빠지는 성격’이나 ‘썩어 빠진/*빠지는 정신머리’, ‘정신이 썩어 빠졌다.’와 같은 예들에서처럼 ‘무르다, 썩다’ 등의 동사와도 결합되는 것으로 보아 선행용언이 형용사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제약이라고 볼 수 없다.

- 다'. 지금 살고 있는 고시원은 너무 좋아요.
- 라. 내 운동화는 너무 닳아 {*빠져요/빠졌어요}.
- 라'. 내 운동화는 너무 닳았어요.
- 마. 아버지가 사용하시는 기계는 낡아 {*빠져요/빠졌어요}.
- 마'. 아버지가 사용하시는 기계는 낡았어요.

(7가~다)의 형용사 ‘약하다, 흔하다, 좁다’는 현재 상태를 나타낼 경우 (7가'~다')처럼 현재형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 ‘빠지다’와 ‘터지다’가 결합된 (7가~다)의 경우에도 현재형으로 쓸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었-’이 결합한 경우에 자연스럽다. 반면에 (7라, 마)의 상태 동사 ‘닳다’와 ‘낡다’의 경우는 현재 상태를 (7라', 마')처럼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닳거나 낡기 시작하여 현재 그 상태의 결과가 나타났음을 의미하는 ‘닳았어요’와 ‘낡았어요’가 자연스럽고 ‘빠지가’가 결합한 경우에도 ‘닳아 빠졌어요’나 ‘낡아 빠졌어요’가 자연스럽다.

그러므로 ‘-어 빠지다’와 ‘-어 터지다’가 결합할 경우에도 ‘-고 자빠졌다’와 ‘-고 앉았다’의 경우에서처럼 현재 상황이나 사태를 나타낼 경우 ‘-었-’이 결합되어 나타남을 알 수 있고 의미 해석상 이때 결합된 ‘-었-’은 과거시제 선어말어미가 아닌 ‘상태지속상’이나 ‘결과상’을 나타내는 ‘-었-’이 결합되었다고 할 수 있다.

- (7')가. *그는 마음이 약해 빠져 있어요.
- 나. *그런 종류는 주변에 흔해 터져 있어요.
- 다. *지금 살고 있는 고시원은 너무 좁아 터져 있어요.
- 라. ?내 운동화는 너무 닳아 빠져 있어요.
- 마. ?아버지가 사용하시는 기계는 너무 낡아 빠져 있어요.

(7가~마)의 ‘-어 빠졌다’와 ‘-어 터졌다’를 (7'가~마)처럼 ‘-어 빠져 있다’와 ‘-어 터져 있다’로 바꾸어 보았을 때 상태동사 ‘닳다’와 ‘낡다’는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데 반해 형용사 ‘약하다’와 ‘흔하다’, ‘좁다’는 부자연스럽게 느껴진다. 그러므로 ‘-어 빠졌다’와 ‘-어 터졌다’ 보조용언은 ‘-었-’이 결합한 형태가 하나의 고정된 보조용언으로 쓰인다고 할 수 있겠다. 이들은 [[[형용사/상태동사]+어 빠지-]+어 있-]와 같은 구조를 가진 구성이거나 ‘[[[형용사/상태동사]+어 빠지-]+었-]’처럼 두 연속 동사에 선어말어미 ‘-었-’이 결합된 구성에서 발달한 것으로 [[[형용사/상태동사]+어 [빠지-+었(<-어 있-)]]으로 재구조화가 일어난 후 후행 용언이 축약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 후자의 구조라고 해도 선어말어미 ‘-었-’은 과거시제를 나타낸 것으로 보기보다는 어떤 상태가 유지된다는 상태 지속상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 (8)가. 이 집은 너무 오래 돼서 문고리가 **닳아(서) 빠졌다**.
- 가'. 문고리가 {**닳아 빠져/닳아서**} 곧 교체를 해야 할 것 같다.
- 나. K마트에서 꼭지가 **시들어(서) 빠진** 과일은 반값 세일을 한다.
- 나'. 꼭지가 {**시들어 빠진/시든**} 과일을 누가 사니?
- 다. 장독대 위에 익으라고 그냥 놔 둔 감이 **물러(서) 터졌다**.
- 다'. 성격이 그렇게 {**물러 터져/물러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겠니?
- 라. 손잡이가 **약해(서) 빠져서** 수리하는 아저씨를 불렀다.
- 라'. 난 체력이 {**약해 빠져/약해**} 뭘 운동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국어에는 (8가~라)와 같이 두 개의 용언이 연속된 구 구성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구성은 선행용언의 상태로 인해 후행 용언의 결과가 나온다는 본용언의 의미를 갖는 것들이다. 그런데 이러한 구성들은 선행 용언의 상태가 결국 부정적인 결과에 이른다는 문맥적 의미에서 화자는 명제 내용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화자의 부정적 태도는 문장에서 관습화되어 쓰이다가 명제 내용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양태적 의미로 발전하게 된다.⁶⁾ 그래서 (8가'~라')와 같이 본동사의 의미가 아닌 선행 명제에 화자의 부정적인 평가인 '불만스러움'이나 '못마땅함'이 나타내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의미를 드러내기 때문에 '상태성'을 갖는 '흔하다/귀하다', '무르다/단단하다', '좁다/넓다', '게으르다/부지런하다', '느리다/빠르다', '시들다/싱싱하다', '가늘다/굵다', '질기다/연하다', '늪다/젊다', '마르다/통통하다', '약하다/튼튼하다, 못나다/잘나다' 등의 용언 중 주로 부정적인 의미를 띠는 '흔하다, 무르다, 좁다, 게으르다, 느리다, 시들다, 가늘다, 질기다, 늪다, 마르다, 약하다, 못나다' 등과 자주 결합한다.⁷⁾ 그런데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상태성 용언들 모두에 '-어 빠졌다'와 '-어 터졌다'가 결합되는 것은 아니다. '흔하다, 무르다, 식다, 시다, 질다' 등은 두 보조용언 모두 결합할 수 있는 데 반해 '늪다, 낡다, 닳다, 마르다, 썩다, 헤지다, 가늘다, 여위다, 시들다, 약하다'는 '-어 빠졌다'만 결합하고 '붓다, 분다'와 같은 용언은 '-어 터졌다'만 결합된다.

김명희(1984)에서는 '빠지다'는 [역진행]의 상태 변화를 나타내고 '터지다'는 [순진행]의 상태 변화를 나타내어 '말라 빠지다/*말라 터지다', '부어 터지다/*부어 빠지다'와 같은 제약이 있고 '시어 빠지다/시어 터지다'처럼 역진행과 순진행을 따질 수 없는 '시다'의 경우는 모두 가능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김영신(1998)에서는 이 주장에 반론을 제기하며 '늪어 빠지다/*터지다, 낡아 빠지다/*터지다, 닳아 빠지다/*터지다'의 경우 젊은이가 늪는 것이나 새것이 낡는 것, 물건을 사용하면 닳는 것 등은 모두 순진행이라 말할 수 있기 때문에 '터지다'와 '빠지다'의 결합 조건을 [순진행]과 [역진행]의 의미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수축'과 '소멸'의 개념을 갖는 본용언에는 '빠지다'가 결합되고 '팽창'의 개념의 본용언에는 '터지다'가 결합되며 '수축'도 '팽창'도 아닌 용언에는 모두 가능한 것으로 설명하였다. 이러한 견해는 '늪어 빠지다/*터지다, 낡아 빠지다/*터지다, 썩어 빠지다/*터지다'와 '붓어 터지다/*빠지다, 부어 터지다/*빠지다', '느려 빠지다/터지다, 게을러 빠지다/터지다, 시어 빠지다/터지다'와 같은 제약 현상을 설명하는 데 어느 정도 타당성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좁아 {터진/빠진} 방구석에서 뭘 한다고 그래.', '속도가 그렇게 느려 {터져/빠져} 언제 도착해?'나 '그렇게 게을러 {빠져/터져} 무슨 일을 하겠니?'의 '느리다'와 '게으르다'는 '빠르다'와 '부지런하다'의 반의어와의 관계에서 보면 [+감소]나 [+수축]의 개념을 갖는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미 개념으로 결합 관계의 제약 현상을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려워 보인다.

최근 인터넷에서 보이는 용례들을 살펴보면 이전에는 부자연스러운 결합 관계로 판단되었던 용언들이 '-어 빠지다'나 '-어 터지다'와의 제약이 사라지고 결합되는 양상을 보인다. [+수축/감소]나 [+팽창]의 개념과 관계없이 많은 상태성 용언에 '빠지다'나 '터지다'가 결합하고 그 쓰임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9) 가. 좁아 터진 방에 몇 식구가 사는 거야?

- 6) '-어 빠지다'의 부정적 의미에 대해 이선웅(1995:85)나 박선옥(2005:170) 등에서는 본동사 '빠지다'가 빠져들거나 빠져 나와서 좋은 결과의 의미로 쓰이는 일은 드물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런 이미 특성은 '빠지다'가 단독으로 쓰여 '그는 다른 사람보다 용모가 빠진다.', '고른다는 것이 그렇게 빠지는 놈을 골랐다.'처럼 '열등'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랑에 빠지다'나 '연구에 빠지다', '위험에서 빠져 나왔다.'처럼 '빠지다'가 나쁜 결과의 의미로만 쓰인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설명이 얼마나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 7) 간혹 '-어 빠지다'가 '착하다'와 '순하다'와 같은 단어와 결합되는 경우도 있으나 '성격이 착해 빠져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겠니?'와 '우리 아들은 너무나 순해 빠졌다.'처럼 '착하다, 순하다'가 맥락상 부정적으로 평가될 때 쓰인다.

가'. BRT도로는 텅텅비워두고 왜 **좁아빠진** 2차로에 별의별 버스는 다 집어넣으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세종시닷컴, 2021.6.21.>

나. **약해 빠진** 널 어떻게 믿어?

나'. 저는 먼치킨류만 봅니다. 주인공 **약해 터진거** 도대체 무슨맛으로 보는지 <인터넷 블로그, 2004.7.24.>

다. **씩어 빠진** 그런 정신으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

다'. 여자배구 기업은행은 대체 얼마나 **씩어터져** 있길래...<인터넷 자유게시판, 2021.11.22.>

라. **식어 빠진** 전은 정말 맛이 없다.

라'. [김밥 재활용] **식어터진** 김밥이 아름다운 전 으로~! 김밥전 만들기 <인터넷 블로그>

(9가)의 ‘좁다’는 주로 ‘-어 터지다’와 결합되는 용언이고 (9나~라)의 ‘약하다’, ‘씩다’, ‘식다’는 ‘-어 빠지다’와 결합하는 용언들이었는데 최근 인터넷에 올라온 글들에서는 ‘좁다’에 ‘빠지다’가 결합되거나 ‘약하다’, ‘씩다’, ‘식다’에 ‘터지다’가 결합되어 쓰이기도 한다. ‘-어 터지다’보다는 ‘-어 빠지다’가 더 많은 용언과 결합되는 양상을 보이기 는 하나 큰 의미 차이 없이 두 보조용언이 쓰이는 것이다.8)

상태성 용언과 결합되는 ‘-어 빠지다’와 ‘-어 터지다’는 항상 ‘-었-’과 결합된 형태가 현재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이점은 ‘-고 앉았다’와 ‘-고 자빠졌다’와 유사한 형태적인 특성을 갖고 ‘-어 빠지다’와 ‘-어 터지다’가 선행 명제에 대한 화자의 ‘불만족스러움’을 나타낸다는 점에서도 ‘-고 앉았다’와 ‘-고 자빠졌다’와 유사한 양태적 기능을 나타낸다. 그러나 ‘-고 앉았다’나 ‘-고 자빠졌다’가 동작성을 갖는 명제 내용에 결합되는 데 반해 ‘-어 빠졌다’와 ‘-어 터졌다’는 상태성을 갖는 명제 내용이 선행되어야 하는 차이가 있다. 두 종류의 보조용언들은 어떤 성격의 명제 내용을 취하느냐에 따라 선택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아빠는 맨날 골프나 치고 {앉았으면서/*자빠졌으면서} 왜 나한테만 그래?’처럼 윗사람의 행동에 대해 불만족스러움을 나타내는 경우에 ‘-고 앉았다’는 가능하나 ‘-고 자빠졌다’가 불가능한 점을 통해 ‘-고 자빠졌다’가 ‘불만족스러움’이나 ‘못마땅함’을 넘어 [+비속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엄마는 너무 {약해 빠져서/물러 터져서} 사람들한테 무시당해.’처럼 윗사람의 상태를 ‘-어 빠지다’와 ‘-어 터지다’를 써서 나타낼 수 있는 점으로 보아 이들에게는 화자의 [+못마땅함]이나 [+불만족스러움]은 있으나 [+비속성]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양태적 의미와 함께 두 유형의 보조용언 구성은 상적인 의미도 나타내는데 ‘-고 앉았다’와 ‘-고 자빠졌다’는 선행 명제에 [+진행상]을 나타내는데 ‘-어 빠졌다’와 ‘-어 터졌다’는 [+상태지속상]을 나타낸다는 차이점도 있다. 이러한 차이는 선행하는 연결어미 ‘-고’와 ‘-어’의 차이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앉았다’와 ‘자빠졌다’, ‘빠졌다’와 ‘터졌다’ 모두에 ‘있다’ 용언이 축약되어 있으므로 선행하는 연결어미 ‘-고’와 ‘-어’와 축약 형태 속에 녹아 있는 ‘있다’가 문법적으로 관련을 맺으면서 이러한 상적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 결론

본고는 보조용언들 중에 ‘-었-’이 결합한 형태가 현재 사태를 나타내는 보조용언 ‘-고 앉았다’와 ‘-고 자빠졌다’, ‘-어 빠졌다’와 ‘-어 터졌다’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들 보조용언은 상태지속을 나타내는 ‘-어 있-

8) 문법화된 문법요소 중에는 그 의미 기능에서 유사성을 띠면서 동일한 의미 기능을 나타내어 동의어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다. 접미사인 ‘-어뜨리다/-뜨리다(밀어뜨리다/밀어뜨리다)’, ‘-대다/-거리다(딸랑대다/딸랑거리다)’ 등이 그것이다.

이 축약된 ‘-었-’이 결합되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으나 보조용언과 결합되는 연결어미가 ‘-고’ 또는 ‘-어’로 다르게 나타난다. ‘-고’와 연결된 ‘-고 앉았다’와 ‘-고 자빠졌다’는 선행 명제 내용이 진행됨을 나타내고 ‘-어’로 연결된 ‘-어 빠졌다’와 ‘-어 터졌다’는 상태지속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양태적 의미에서는 모두 화자의 불만족스러움이나 못마땅함을 나타내는데 ‘-고 앉았다’와 ‘-고 자빠졌다’가 ‘어떤 행위에 대한 화자의 불만족스러움’을 드러내는 보조용언이라면 ‘-어 빠졌다’와 ‘-어 터졌다’는 ‘어떤 상태에 대한 화자의 불만족스러움’을 드러내는 보조용언이라 할 수 있다.

‘-고 앉았다’와 ‘-고 자빠졌다’는 ‘-고 있다’와 계열을 이루며 상적으로는 동일하게 진행상을 나타내면 서도 양태적으로 ‘-고 있다’는 중립적인 표현으로, ‘-고 앉았다’와 ‘-고 자빠졌다’는 화자의 ‘불만족스러움’이나 ‘못마땅함’을 나타낸다. 그리고 ‘-고 자빠졌다’에는 [+비속성]까지 드러난다.

기존 연구에서는 ‘-어 빠지다’와 ‘-어 터지다’는 선행용언으로 형용사로 한정되고 선행용언인 형용사의 개념적 속성에 따라 선택되는 보조용언이 다르다고 보았다. 그러나 두 보조용언은 형용사와 상태 동사에 주로 결합되며 ‘좁아 터지다/빠지다’, ‘식어 빠지다/터지다’, ‘씩어 빠지다/터지다’, ‘느려 터지다/빠지다’, ‘약해 터지다/빠지다’, ‘시어 터지다/빠지다’ 등의 예에서처럼 결합 제약이 점점 사라지고 유사한 의미 기능을 나타내는 보조용언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정리해 보면 ‘-고 앉다’와 ‘-고 자빠지다’, ‘-어 빠지다’와 ‘-어 터지다’는 형태적으로 종결형에 ‘-었-’이 결합된다는 공통점이 있고, 의미적으로 화자의 불만족스러움을 나타내는 양태 의미를 담당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그러나 ‘-고 앉다’와 ‘-고 자빠지다’는 ‘-고 있다’와 함께 선행 명제 내용의 동작이 진행됨을 나타내는 [진행상] 의미 기능을 띠는데 ‘-고 있다’가 양태 의미에서 중립적인 반면 ‘-고 앉다’와 ‘-고 자빠지다’는 화자의 ‘불만족스러움’, ‘못마땅함’이 더 드러난다. ‘-어 빠지다’와 ‘-어 터지다’는 명제 내용의 상태에 대해 불만족스러움을 나타내는 양태적 의미를 나타내는데 두 보조용언 모두 [상태 지속상]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두 보조용언은 선행 용언의 분포의 차이를 보였던 것들이나 점점 그 간격이 줄어들고 거의 유사한 기능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고는 ‘-었-’이 결합하는 보조용언 ‘-고 앉다’, ‘-고 자빠지다’, ‘-어 빠지다’와 ‘-어 터지다’에 대한 문법화 과정과 의미 기능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러나 아직 통사적 제약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펴보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이에 대한 보완 연구가 차후에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참고 문헌]

- 강홍구(1999), 국어 보조동사의 통사' 의미론적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구중남(2013), 보조용언의 의미와 용법, 도서출판 경진, 10-44.
 김기혁(1987), 국어 보조동사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성화(1992), 현대국어의 상 연구, 한신문화사.
 김영신(1998), 강조 보조용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2-46.
 류시중(1995), 국어 보조용언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기표(2014), 한국어 보조용언의 형태'통사론적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선옥(2005), 국어 보조용언의 통사와 의미 연구, 역락
 박영준(1998), 형태소 ‘-었-’의 통사적 변천, 한국어학 제8집, 한국어학회, 67-88.
 손세모돌(1996), 국어 보조용언 연구, 한국문화사.
 송창선(2003), 현대국어 ‘-었-’의 기능 연구-‘-었겠-, -있더-, -있었-’을 중심으로 언어과학연구 27,
 이선웅(1995), 현대국어의 보조용언 연구, 국어연구 133.
 이선웅(2007), 한국어 문법론의 개념어 연구, 월인, 400-403.
 임동훈(2021), 부차 개념의 통사적 실현과 보조동사 구문, 국어학 97, 59-88.
 진가리(2018), 한국어 보조용언 연구, 울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Heine, Bernd(1993), Auxiliaries: Cognitive Forces and Grammmaticalization, Oxford University Press.